

# Deloitte.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Newsletter

「2025년 감사위원회 안건 전망」  
및 1월 동향

2025.01



# Contents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03
II. 규제 동향	06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15
IV. 그룹·센터 소식	17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2025년 감사위원회 안건 전망

2025년 1월, Deloitte Global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audit committee's agenda – Looking ahead to 2025」

- 딜로이트 글로벌은 2025년 감사위원회 안건에 포함할 만한 주요항목을 제시함
- 규제 관련

### 1.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안건 주시

- 신규 규제(기후공시규칙 등)는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의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 준비·실행 필요
- 공시 관련 추가적인 규칙 제정(이사회 다양성 등)이 계획 중이며, 감사위원회 감독 필요

### 2. PCAOB(미국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 감사 기준 개정안(NOCLAR)

- '기업의 법률·규정 위반을 식별 및 전달하는 외부감사인의 의무'를 확대하는 제안으로 '25년으로 도입일정이 조정됐으며, 감사위원회의 면밀한 모니터링 필요
- 감사위원회는 PCAOB 검사보고서를 검토해야 하며, 외부감사인 평가 시 고려 필요

- 리스크

### AI·생성형 AI

- 사이버보안 등 위반 발생 시 감사위원회의 관여가 더욱 중요해질 것
- 일부 조직에서 AI 감독 책임이 이사회와 위원회 중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았으나, 내부감사·재무 조직 내 AI 활용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이 큼

### 사이버보안

- 수년간 감사위원회와 이사회는 핵심 안건이었으며, 여전히 최우선 과제임
- 감사위원회는 사이버보안 위협의 예방, 탐지, 대응을 위한 정책·기술을 충분히 이해해야 함

- 전사 리스크 관리(ERM)

- 신규 위험(AI 등)의 확산으로 ERM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형식적 수준에 머물 수 있음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ERM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함

- 감사위원회 효과성

- 지배기구는 기술,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효과성의 개선 여지가 있음에도 활용이 충분하지 않음
- 감사위원회 효과성 제고를 위한 혁신적 접근(예: 기술 활용)을 주도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있어 감사위원장의 책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원문 다운로드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2024년 이사회 아젠다를 돌아보며

2024년 12월, Deloitte Global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d's Agenda – Looking back at a look forward」

- '25년 이사회가 직면할 위험과 기회는 작년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나, 역동적인 거버넌스 환경으로 인해 아젠다의 세부 항목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주요 아젠다



원문 다운로드

구분	주요 내용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적 불확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치적 상황을 거시 경제환경과 연계하여, 기후변화, 글로벌 이주 패턴 변화, 무력 충돌 등이 비즈니스 논의에서 주요 주제로 부각됨</li> </ul>
규제 검토 및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EC는 다양한 공시 규제에 집중한 결과, 33개의 규정을 최종 채택하고 3개의 규정을 제안함</li> <li>• SEC의 기후공시 도입은 법원 판결 확정 시까지 보류됐으며, 미 연방대법원은 쉐브론 독트린* 폐기를 통해 법률 해석의 최종 권한이 법원에 있음을 명확히함</li> <li>* 행정기관의 법률 해석을 법원이 존중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미국 행정법 원칙</li> </ul>
사이버보안 및 디지털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는 사이버 문제를 비즈니스 연속성의 위협으로 인식함</li> <li>• 생성형 AI 도입으로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됨</li> <l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운영, 업무방식, 비즈니스 모델 등을 혁신하는 전략</li> </ul>
생성형 A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는 AI-생성형 AI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관련 지식과 경험을 향상시키며, 조직 내 도입 속도를 가속화하고자 함</li> </ul>

- 관리·감독 사안이 증가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통합적 감독 방식을 채택한 이사회는 복잡한 비즈니스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임

### 이사회 효과성

- 이사회에 제공되는 정보의 품질과 적시성 향상
- 이사회 및 위원회 안건을 재조정하여 이사의 시간 활용 효율화
- 보다 엄격한 이사회, 위원회 및 개별 이사 평가 체계 도입
- 이사회 승계계획 시 필요한 이사 스킬셋(Skill set) 집중
- 신입 이사 온보딩 프로그램의 효과성 강화
- 지속적인 이사 교육 기회 확대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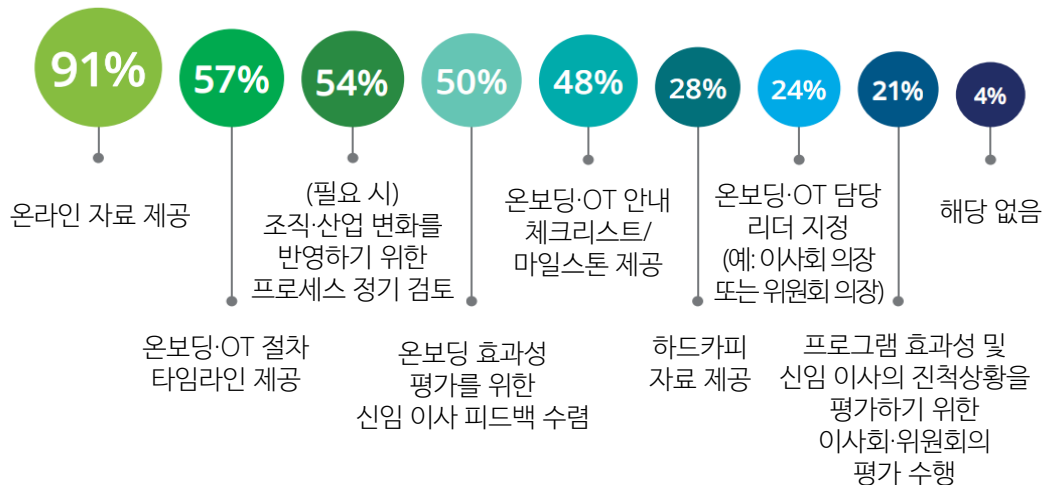
## 신임 이사를 위한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

2024년 12월, Deloitte Global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Board Practices Quarterly: Director onboarding and orientation」

- 온보딩 및 오리엔테이션(OT)은 신임 이사가 조직의 거버넌스 구조와 문화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임
- '24.12월, 신임 이사를 위한 온보딩·OT 프로그램에 관한 서베이를 실시함
  - 기업거버넌스협회 회원사 113개 글로벌 상장사의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 고문번호사 및 기타 사내 거버넌스 전문가대상
    - \* 미국, 영국 등의 기업에서 법무, 이사회 지원, 거버넌스 관리, 주주관계 업무 등을 총괄하는 고위관리직
- '신임 이사를 위한 온보딩·OT 프로그램 제공 여부'에 대한 서베이 결과, 거의 모든 상장사(94%)는 '신임 이사회 구성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반면, '신임 위원회 구성원' 대상 제공 비율은 41%로 상대적으로 낮음
  - '18년 서베이 결과에서는 각각 89%와 40%가 동 프로그램을 갖췄다고 응답함
- '신임 이사 온보딩·OT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진'에 대한 서베이 결과, 대부분의 기업(최소 93%)이 최고법률책임자(CLO), 최고재무책임자(CFO),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가 참여한다고 응답함
  - 가장 적게 참여하는 직책은 최고컴플라이언스책임자(CCO), 최고리스크관리책임자(CRO), 최고다양성책임자(CDO)로 나타남



### 신임 이사 온보딩·OT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절차



## 2024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결산

2025.01.09 (목)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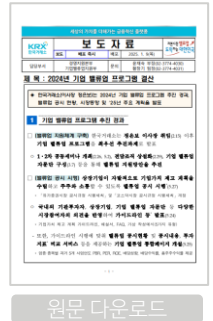
- 한국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최우선 추진과제로 발표 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장사가 자발적으로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주주와 소통할 수 있도록 밸류업 공시를 도입하도록 지원함
-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2년 차를 맞아 성공적 안착을 위해 밸류업 공시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관계 부처 협의 등 지원 노력을 계속할 것임
- 주요 내용

### 1.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현황

- '24.5월 말 밸류업 공시 시행 후 102사(본공시 94사, 예고공시 8사),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41%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이 공시함
  - 4분기에만 80사가 본공시를 실시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임
- 초기에는 PBR이 낮은 금융업종 비중이 높았으나, 시장 대표 기업들의 참여로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기업들은 ①주주환원 제고(89%, 84사), ②자본효율성 개선(73%, 69사), ③성장성 향상(49%, 46사), ④시장평가 개선(31%, 29사) 순으로 목표를 수립함
- 본공시 기준 공시기업 중 84%(79사)는 이사회 결의·보고를 거쳤으며, 52%(49사)는 외국인 투자자 소통을 위해 영문공시를 제출함

### 2.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시장동향

- 밸류업 본공시기업 주가는 연초 대비 평균 3.2% 상승했고, 특히 코스피 본공시기업의 주가는 연초 대비 평균 4.9% 상승하며, 코스피지수 수익률(△9.6%)을 약 15%p 초과함
- 주주가치 존중에 대한 관심 제고로 '24년 주주환원 규모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함
  - 자사주 매입은 전년 대비 2.3배 증가(10.6조원 ↑)하여 '09년 이후 최고치이며, 자사주 소각도 2.9배 증가(9.1조원 ↑)하여 최근 7년 중 최대임
- 상장사의 '24년 현금배당액이 45.8조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여 배당도 확대되는 추세임



## IFRS17 안정화 추진경과 및 향후 감독방향

2025.01.06 (월) 금융감독원

- 감독당국은 IFRS17 안정화를 위해 '24년 말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회계이슈(공시이율 예실차 등)를 검토하는 한편, 계리가정(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합리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
- 주요 추진 경과

### 1. IFRS17 안정화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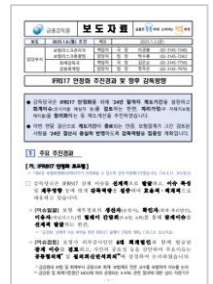
- 감독당국은 IFRS17 잠재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슈 특성 및 재무영향에 맞게 감독역량을 집중하여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보험사, 회계·계리법인, 애널리스트와의 간담회(5~6월, 6회)를 통해 잠재이슈 발굴
  - 보험사 외부감사인인 4대 회계법인과 잠재 이슈를 검토하고, 주요이슈는 공동협의체 및 질의회신연석회의에 상정하여 논의함
  - 12월에는 공시이율(금리연동형 보험의 부리이율)의 예상과 실제 차이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해 질의회신연석회의 및 회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회신함

### 2. 보험개혁회의

- 원칙 중심의 기준서 취지에 맞춰 비합리적·자의적 실무 관행을 개선하고 IFRS17 제도 안착을 도모함
  -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 가정을 합리화하고, 할인율 현실화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함
  -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며, 주요 재무정보 공시 확대 및 외부검증 강화를 통해 보험회계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예정

### 3. 시사점

- 금융당국의 지도와 보험업계 이행으로 시행 초기 회계이슈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임
  - 단기 실적 극대화를 위해 비합리적 회계가정을 적용했던 일부 보험사는, '24년 결산 시 재무상황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초장기(최대 120년)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IFRS17 결산의 특징으로 인해 계리가정 관리 등 계리 감독강화 필요성이 증가함
- 금융당국은 '24년 결산이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감독역량을 집중하고, 보험부채 시가평가 제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보험계리 감독·검사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추진 예정임



원문 다운로드

#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간 유예

2024.12.31 (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지난 12월 3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함
- 주요 내용

### 1. 추진배경

-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및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된 조치이나, 모든 기업에 일률 적용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주기적 지정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스스로 지배구조 및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및 감사품질을 강화하여 회계투명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함

### 2. 신청대상

- 주기적 지정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회사는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18년) 1년 이상 지정감사(주기적 지정 또는 직권 지정 모두 포함)를 받은 경우로, 최근 3년 내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회사
  - 결격사유는 ①관련 법령위반, ②회계신뢰성 결여로 구성

### 3. 우수기업 평가기준

-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5대 분야, 17개 항목의 핵심지표 선정
  - 예측가능성 및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점 평가항목과 배점을 공개하고, 정량화된 절대평가 방식 적용
  -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의 '수준'을 평가하되 회사의 개선·변화 '노력'도 반영함
- 
- 유예대상 회사 선정 이후 최초 도래하는 주기적 지정이 3년간 유예되어 추가로 3년간 감사인을 자율 선임할 수 있음(감사인 자유선임기간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되는 효과)
  - '25.1분기 중 평가위원회를 구성, 하반기 평가 및 유예대상을 결정하며,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 이전까지 3년간('25~'27년) 신청 받아 운영할 계획임



원문 다운로드



#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24.12.31 (화)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
- 주주가치 중심 기업경영 지원 주요내용

### 1. 주주가치 중심 경영활동 지원

- 기업의 밸류업 중심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지역별 설명회 개최
  - 일반주주 이익 보호 및 회계투명성 제고, 밸류업 동기 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및 IPO 제도 개선사항 안내
  - 증권신고서 작성 시 필수 기재사항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하여 주주가치 중심 경영 지원
  -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기업가치 훼손 사례 소개를 통해 투명성 제고

### 2.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 활동 독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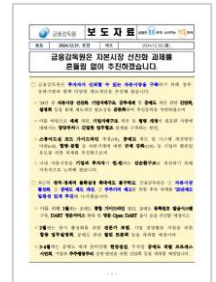
- 투자자-기업 상호작용으로 기업가치 제고의 선순환 구조 정립을 위해 기관투자자의 경영관여(Engagement) 독려
  -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과 간담회를 통해 수탁자 독립성·투명성·책임성 강화 방안 논의
  - 의결권행사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실태 점검·공개 등을 통해 의결권행사 활성화

### 3. 기업지배구조 개선 지원

- 학회 등과 세미나·학술대회를 통해 일반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학계 의견 수렴 예정
  - 국회입법 논의 지원과 후속 작업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며 완성 예정

### 4. 기업과 주주행동주의의 소통 강화

- 기업과 주주행동주의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으로 상생·발전 방안 모색
  - '24.4월 제1차 간담회에 이어 행동주의 펀드, 기업 등과 제2차 간담회 개최 예정
  -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주요경영관여 활동에 대한 분석결과 및 선진국 성공사례를 공유하며 주주행동주의의 긍정적 역할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 및 제도 개선 추진 예정



원문 다운로드

##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4.12.30 (월)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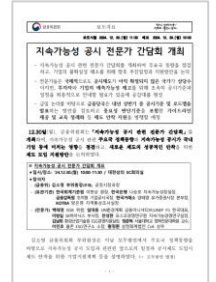
-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 공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요국 정책동향과 공시가 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함
- 주요 내용

### 1. 공시 기준 및 일정

- 국제적으로 공시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국가가 많지만, 투자자 예측가능성과 자본시장 자금유입 제고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공시기준과 로드맵 발표를 검토중임
    - 지속가능금융은 비가역적 흐름으로, 환경변화로 투자 가치가 급락할 수 있는 좌초자산\*(stranded asset) 중심의 의사결정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려해야 함
      - \*기후변화 등 환경의 변화로 자산 가치가 떨어져 상각되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의미함
    - 일례로 화석연료 관련 설비 중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계수가 높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자산이 미래의 핵심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정부는 글로벌 정합성, 제도준수 가능성, 정보 유용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공시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임
- 공시 비용, 소송 리스크를 고려해 기업부담이 높은 스코프3 등은 관계사 데이터 관리 체계 준비가 필요함
- 제101호 정책공시는 공시기준 제외 또는 포함하는 경우에도 정보범위 최소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제도 도입 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제재·손해배상책임 면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음

### 2. 제도 안착 지원

- 기업 지원을 위해 공시기준 발표 시 판단예시 등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매월 기업 담당자와의 소통·교육을 정례화해 공시기준 이해와 보고서 작성을 지원할 예정임
  - 한국회계기준원은 IFRS S2 이행에 관한 산업 기반 지침 번역본을 공개함
  - 한국거래소는 한국회계기준원과 함께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기업에 대한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국내 ESG 평가시장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임



원문 다운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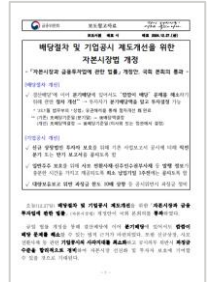


별첨 다운로드

##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2024.12.27 (금) 금융위원회

- 배당절차 및 기업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12.27)
- 법률 개정 주요 내용



원문 다운로드

### 1. 분기배당 절차 개선

- 결산배당은 '23.1월, 상법 유권해석을 통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기준일을 분리 가능하게 하여 기업이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先 배당액결정, 後 배당기준일' 구조로, 투자자는 배당액 확인 후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절차 개선이 점차 확대중임
-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3·6·9월 말로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 이사회 결정 또는 정관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지정 가능하게 함
  - 분기말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에서 배당액을 결정하고 투자자는 지정된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결정을 할 수 있게 됨
  - 분기배당 시행 기업의 높은 배당성향은 이른바 '배당주의'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배당 목적의 중·장기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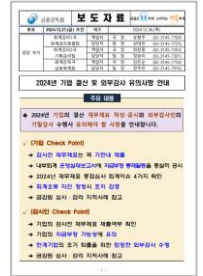
### 2. 기업공시 개선

- 신규 상장법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공시토록 함
    - 신규 상장법인은 직전 사업보고서 공시(제출)의무만 있어,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사모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정보는 최소 납입기일 1주전 공시하도록 함
  - 5% 보고·공시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한도를 10배 상향 조정하여 공시 준수 가능성을 제고함
- 
- 분기배당 절차 개선 관련 내용은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되며, 기업공시 개선 관련 내용은 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

2024.12.27 (금)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24년 기업의 결산 재무제표 작성·공시와 외부감사인인 기말감사 수행 시 유의사항을 안내함
- 주요 내용



[원문 다운로드](#)

구분	내용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결산능력 강화로 경영진 책임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법정기한내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권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도 증선위에 제출</li> </ul> </li> <li>●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부정 통제활동을 충실히 공시</li> <li>● 2024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 4가지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수익인식 회계처리, ②비시장성 자산평가, ③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④가상자산 회계처리</li> </ul> </li> <li>● 회계오류 자진 정정 시 조치 감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신규 거래유형에 대한 적정 회계처리기준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정기 점검 및 적시 수정을 통해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li> <li>- 오류 발견 시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신속·적정 수정 및 공시</li> </ul> </li> <li>●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li> </ul>
외부감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전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제출의무 위반 시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li> </ul> </li> <li>● 기업의 자금부정 가능성에 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한 위반사항 발견 시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에 통보</li> </ul> </li> <li>● 한계기업의 조기 퇴출을 위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강화된 감사절차 적용, 특이거래 감사증빙 확보, 발견한 부정행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통보절차 준수 및 회사의 조사 결과 등 확인</li> </ul> </li> <li>● 금융감독원 심사·감리 지적사례 참고</li> </ul>

# 2024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4억 700만원 지급

2024.12.26 (목)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기여한 경우, '19년부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 '23.5월,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2배(10억→20억)로 상향하는 등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 '24년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총 지급액은 4억 7백만원으로 전년(251백만원) 대비 1.6배 증가했으며, 건당 지급액도 5,814만원으로 전년(3,131만원) 대비 1.8배 이상 증가함
  - 회계부정 적발의 단서로 활용된 신고가 늘었으며, 1건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규모인 2.07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됨
  - 최근 5년간 회계부정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은 증가 추세임
- '24년 포상금 지급 대상자(회계부정 신고자)들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 적발·조치에 기여함
  - 증선위·금융위는 3건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했고, 고의 회계분식 등 2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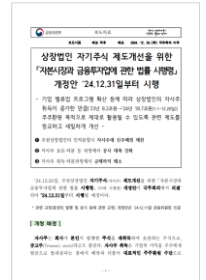


원문 다운로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12.31일부터 시행

2024.12.24 (화) 금융위원회

- 지난 12월 24일, 주권상장법인 자사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임
- 기업 밸류업 확산으로 상장법인의 자사주 취득이 증가함에 따라 주주환원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함
  - 자사주 취득은 '23년 8.2조원에서 '24년 18.7조원으로 증가해 최근 7년간 최대 규모를 기록함
- 주요 내용



원문 다운로드

### 1.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 상장법인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금지하며, 합병 시 소멸법인의 자사주도 신주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2. 공시 강화

- 임의적인 자사주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 감시와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정
  - 상장법인의 자사주 보유비중이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자사주 보유현황, 목적, 처리계획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이사회 승인 후 공시
  - 모든 상장법인이 자사주 처분 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

### 3.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 신탁으로 자사주 취득 시, 직접 취득방식과 동일하게 자사주 취득금액이 당초 계획·공시된 자사주 매입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 대해 규정
    - 사유서 제출, 계획된 자사주 매입기간 종료 후 1개월 내 새로운 신탁계약 체결 제한
  - 신탁 계약기간 중 신탁업자가 자사주 처분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
    -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주요사항보고서에 공시하도록 개선
- 주권상장법인의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오용되지 않고,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 취지대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됨

##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업지배구조



- 공정위 'ESG 법령 준수 위한 기업 활동, 경영간섭 아냐' [쿠키뉴스]
- 금융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 감사' 3년간 유예 [경향신문]
- 밸류업 동력 잃지 않도록...인센티브 확대·지배구조 개선 추진 [뉴스1]
- 금감원, 내년 기업지배구조 인프라 개선 주력 [아시아투데이]
- 배런스 '한국 정치 위기가 기업지배구조 개혁 촉진할 것...증시에 긍정적 영향' [글로벌이코노믹]
-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 국회에 상법 개정 촉구...공개서한 발송 [머니투데이]
- 금감원, 내년 주총 후 금융사 CEO 승계절차 일괄점검 [뉴스시]
- 이복현 '지배구조 개선 필요하지만...상법보단 자본시장법 개정해야' [마켓인]
- 공정위,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공개 [슈핑뉴스넷]

### 이사회·감사위원회



- 30대 그룹 사외이사 관료 출신 ↑ ...전문 분야 법률 정책 쏠려 [SBS 뉴스]
- KB증권 이어 NH투자증권도 상근감사 없앤다 [한국경제]
- 신한·하나카드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 신설...내부통제 강화 속도 [아시아투데이]
- 한진그룹 편입된 아시아나...첫 이사회는 '7인 체제' [연합인포맥스]
- 금융지주, 사외이사 배만 불리는 소위원회 남발 [뉴스통]
- 4대 금융 사외이사 74% 임기 만료...재선임 관례 변화 불가피 [뉴스토마토]

### 한국 딜로이트 그룹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4호' 발간 [한국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4 결산 준비 공시 대응 세미나' 성료 [조세일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CES 2025' 프리뷰 보고서 발행 [시타임스]
- AI 에이전트, 기업 혁신의 새 지평 연다...딜로이트와 15일 웨비나 [IT 조선]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아시아-태평양 AI 거버넌스 현황과 전략 분석 리포트 공개 [이코노믹리뷰]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5 금융 혁신 키워드 기술, 규제, 인간 제시 [아이보스]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김병삼 파트너, 'ESG 규제 전환점 주목...선제적 대응 시급' [한경 ESG]
- 분당 도담빌딩 매각 주관사에 교보리얼코·딜로이트 안진 [조선비즈]

## III 거버넌스(G) 관련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회계투명성



- 금감원, 올해 회계부정 신고자에 4억700만원 포상금 [연합뉴스]
- 감사 전 재무제표, 기한 내 제출해야... 금감원, 결산 유의사항 안내 [뉴스1]
- 증선위,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감리결과 조치 [Daily NTN]
- 한국공인회계사회 '공공·비영리분야 회계투명성 훼손 대응 키울 것' [한국경제]
- 우리금융, 내부통제 강화 윤리경영실 신설 [인더뉴스]
- 금감원, 가상자산 회계처리 중점 점검...수익 인식·투명 공시 강조 [블록미디어]

### 부정행위방지



- 한국거래소, 시장운영 비대위 운영...불공정거래 감시 [한국경제]
- 금감원 '자금부정 통제 충실히 점검'.. 결산 유의사항 당부 [청년일보]
- 주가조작범, 최장 5년간 주식거래 제한...상장사 임원도 못한다 [한국경제]
- '사외이사가 폐친이라' 증선위, 정치테마주 부정거래 검찰 통보 [머니투데이]
- '매출 급증한 한계기업, 감사 더 꼼꼼히 받아야' [한국경제]
- 분식회계 수법 고도화되는데...회계감리 '계좌추적권' 부활하나 [세계일보]

### 규제동향



- 금융위 '내년 상반기 중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발표 검토' [서울파이낸스]
- 거래소 '밸류업 공시 총 102개사 참여'...자사주 매입 규모 2009년 이후 최대 [해럴드 경제]
- 금감원 'IFRS17 개선으로 보험사 재무 변동 불가피' [아시아경제]
- 분기배당도 '선배당 후투자' 가능해진다...자본시장법 개정 [연합뉴스]
- 금감원 '내년에도 자본시장 선진화 일관성 있게...공매도 3월 재개' [뉴스1]

### M&A



- M&A방식 기업승계 활성화...기업승계법 제정 [이데일리]
- 딜 흑한기...대기업 M&A 7년 만에 최저 [한국경제]
- 대기업 M&A 40% 급감...1조 이상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가 유일 [경향신문]
- 국가핵심기술 보호벽 높인다...신속지정·M&A 심사 강화 [연합뉴스]
- '5조 대어' DIG에어가스 매물로...올해 M&A 최대규모 딜 예상 [한국경제]
- 대기업 M&A 역대 최저...밸류업 주문에 미래 위한 투자 나섰다 [서울경제]
- 정부, 석유화학 사업재편 시동...M&A·R&D·금융세계 등 지원 [한국무역협회]



## IV 그룹·센터 소식

UPCOMING EVENTS |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 [웨비나] 생성형 AI: 이사회가 알아야 할 사항


구분	내용
일시	2025년 2월 20일 (목) 오전 01:00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조직이 파일럿 단계를 넘어 전략과 운영에 생성형 AI를 보다 광범위하게 통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이사회는 조직의 AI 접근 방식을 감독하는데 얼마나 관여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li><li>• 이사회는 모든 중요 안건에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기 위해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 생성형 AI 구현이 적절한 관리 체계 하에 투명하고 안전하며 책임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임</li><li>• AI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과 함께 급변하는 AI 환경에 대해 논의하고, 생성형 AI 이사회 스튜어드십에 관한 딜로이트 글로벌의 최근 설문 조사 결과도 공유할 예정임</li></ul>

 신청하기

## IV 그룹·센터 소식

UPCOMING EVENTS |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 [서베이] 이사회 거버넌스 - '생성형 AI에 관하여'

구분	내용	 참여하기
실시시기	현재 진행 중 ~ 2025년 2월 21일까지	
대상	기업 사외이사, 최고경영진, 감사 등	
설문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요청에 대응하여 텍스트, 이미지, 기타 미디어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의미함</li> <li>• 이사회 구성, 지식 및 교육</li> <li>• 거버넌스, 아젠다 및 집중영역</li> <li>• 이사회 감독 및 관리방향</li> <li>• 비즈니스 영향, 전략, 리스크, 이해관계자 및 규정</li> </ul>	
참여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가입 시</li> <li>- 정기 글로벌 웨비나 초대</li> <li>- 글로벌 정기 발간물 송부</li> </ul>	

## IV 그룹·센터 소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2025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제4판 발간

-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기업지배구조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실무지침과 통찰을 담은 「2025 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제4판을 발간함
- ▶ 제4판에서는 특히 '23-'24년에 개정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기업가치 제고계획(밸류업 프로그램), 개정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책무구조도 등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방안, 주요국 및 주요기관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개정사항, 딜로이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2024 개정판 등 최신 내용을 반영함



구분	목차
I. 기업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업지배구조 정의</li> <li>② 기업지배구조 원칙 및 프레임워크</li> <li>③ 거버넌스 관련 보고서 공시</li> <li>④ 딜로이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li> </ul>
II. 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이사회 역할</li> <li>② 이사회 핵심 관심 영역</li> <li>③ 이사회 감독기능 효과성 모델</li> </ul>
III. 감사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감사위원회의 의의</li> <li>②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구성</li> <li>③ 감사위원회의 운영</li> <li>④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li> <li>⑤ 감사위원회의 평가, 보수 및 교육</li> </ul>

## IV 그룹·센터 소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4호 발간

- 금번 보고서는 2023회계연도 KOSPI200 상장법인의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현황을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과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했으며,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동향을 담음
- KOSPI200 상장법인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에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공시한 85사 중 실질적인 독립성을 갖춘 경우는 절반 수준(43사, 50.6%)에 그침
- KOSPI200 상장법인 내부감사부서 설치 172사 중 감사(위원회) 직속 보고라인 및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임면동의권 모두 갖춘 곳은 63사(36.6%)에 불과하며, 전기 대비(61사) 4.5%p 증가했지만, 여전히 국내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환경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구분	목차
I. 2024년 KOSPI200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업지배구조에서 내부감사의 역할</li> <li>② 관련 법규</li> <li>③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li> <li>④ IIA의 3선 모델</li> <li>⑤ 내부감사부서 관련 공시</li> <li>⑥ FY2023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li> <li>⑦ 내부감사 기능에 대한 글로벌 관점</li> <li>⑧ 감사위원회의 지원사항</li> <li>⑨ 결언</li> <li>⑩ [부록] 자료수집</li> </ul>
II. 2024년 하반기 주요 규제 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ACGA, 한국 주주총회 운영 개선안 제시</li> <li>②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지정' 3년간 유예</li> <li>③ 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li> <li>④ 2024년 한국ESG기준원(KCGS) 우수기업 선정</li> </ul>

## IV 그룹·센터 소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온라인 교육]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 동영상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ICFR Regulation (상/하)</li> <li>2. ICFR 감사방법론</li> <li>3. 위험평가</li> <li>4. 범위선정</li> <li>5. 통제활동 (상/하)</li> <li>6. 변화관리와 설계평가</li> <li>7. 운영평가 (상/중/하)</li> <li>8. 모니터링 및 보고</li> <li>9. 연결 ICFR 구축 및 운영 (상/하)</li> <li>10. 정보기술일반통제 (상/하)</li> <li>11. 자동통제 (상/하)</li> <li>12. Post ICFR 운영방안</li> <li>13. 자금부정통제공시서식 해설 및 체크포인트</li> <li>14.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 체크포인트 해설</li> <li>15. 경영진의 검토 통제</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무 과정의 동영상 교육을 공개함</li> <li>• 2023년부터 시행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외부감사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보다 심도 깊은 동영상 교육컨텐츠를 준비함</li> <li>• 내부회계관리제도 동영상 교육수강 및 수료증발급은 상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동영상 80% 이상 수강 시 수료증 발급 가능함</li> </ul>

 신청하기

## IV 그룹·센터 소식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온라인 교육]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구분	내용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li><li>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li><li>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li><li>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li><li>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li><li>6. 요약</li></o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li><li>•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li></ul>

 동영상 보기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Contact

딜로이트 안진 기업지배기구 발전센터는  
기업의 회계투명성 확보와 거버넌스 개선을 지원합니다.

### 파트너



#### 김한석 파트너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리더 |  
Audit & Assurance  
✉ hansukim@deloitte.com



####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hyunjeong@deloitte.com



####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 hbkim@deloitte.com



####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 junoh@deloitte.com

### 자문교수단



#### 장정애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노준화 교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문의 | krccg@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톡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톡 채널]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http://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